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글로벌 원유 업체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미국 실적모멘텀 다소 약화. IT 및 금융, 커뮤니케이션 등의 실적 상향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의 이익 하향 관찰. 에너지 이익 하향은 베네주엘라의 석유 공급 확대 가능성으로 유가 하락 영향

엔비디아 & TSMC: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및 GB300 랙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 특히 TSMC의 2nm/3nm 공정 가동률이 풀가동 수준이며, CoWoS 패키징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공급량 급증

ASML: 2025년의 일시적 정체를 지나, 2026년은 인텔, 삼성, TSMC의 파운드리 경쟁이 격화되며 High-NA EUV 노광장비 수주가 실적에 본격 반영되는 'P사이클(가격 상승)' 국면 진입

마이크론: HBM4 세대로의 전환기가 도래하며 고부가 메모리 비중 극대화, AI 서버향 수요 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기기 확산으로 범용 DRAM 가격까지 동반 상승 중

AMD & 램리서치 & 어드반테스트: 엔비디아 독주에 대항하는 빅테크들의 자체 칩(ASIC) 채택 확대가 AMD와 장비사(램리서치), 검사장비(어드밴테스트)의 실적 견인

GE버노바 & 지멘스에너지: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충과 HVDC(초고압직류송전) 수요가 폭발, 2026년 가이던스 기준,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가스 터빈 및 재생에너지 부문의 흑자 폭 확대

엑슨모빌: 유가 안정세 속에서도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기술 및 리튬 추출 사업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성과를 내며 수익성 개선

메타: AI 기반 광고 최적화 도구가 완전히 정착하며 광고 단가(CPM)와 효율성이 크게 개선, 특히 릴스(Reels)를 통한 수익화와 차세대 LLM '라마'의 기업용 유료 모델 도입이 실적 상향의 핵심

프리포트 & 글렌코어: 전력 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구리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판매가격 상승, 글렌코어는 2026년 생산 목표 조정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에 성공했다는 평가

모건스탠리 & 시티그룹 & 찰스슈왑: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투자은행 부문의 IPO 및 M&A 딜 활발, 또한 채권 시장 활성화로 운용 수익 개선

암페놀: 데이터센터 및 전장용 커넥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 IT 하드웨어 부품사 중 가장 견조한 성장

이토추상사: 일본 상사 특유의 자원 포트폴리오 수익 외에도 비자원 부문(유통, 섬유)의 체질 개선 성과가 2026년 초 실적에 반영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통신서비스**(5G Advanced 및 6G 기대감, 통신사들이 AI비서, 자율주행 인프라 등 B2B AI 서비스에 본격적 매출), **항공**(유가 하향 안정화와 글로벌 장거리 노선 탑승률 증가, 방산 수주 등), **기술하드웨어/반도체**(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등에 본격 이식 시점, HBM 뿐 아니라 DDR5 등 수요 폭증, 코로나 시기 구매한 기기 교체 주기 도래 등), **산업 복합 기업 및 산업재**(미국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대규모 설비투자, 공장 자동화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주 급증). **하향 업종**은 상호미디어, 레저, 콘테이너 및 포장, 가정내구재, 개인소비, 가스유틸, 제약, 화학, 에너지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이토추상사, 메이탄, 프리포트맥모란, 글렌코어, 어드반테스트, 리제네론팜, 메타, 찰스슈왑, 램리서치, AMD, TSMC, GE버노바, 마이크론,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ASML, 인텔, 엔비디아, 지멘스에너지 엑슨모빌, 암페놀 등

하향 주요 종목은 페트로브라스, 머크, 알리바바, 웰타워, 코노코필립스, 윌리엄스코스, 캐피탈원, 컴캐스트, 프로수스, 소프트뱅크, BP, 토탈에너지스, UBS, JP모건, BYD, 텐센트, 노바티스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4Q25F OP는 83.9조원 (1W +3.9%, 1M +6.1%, YoY +75.7%), 삼성전자 서프라이즈로 상향 모멘텀 급증. **2026E OP**는 474조원 (1W +7.6%, 1M +11.9%). **4Q25F OP 상향 업종**은 유틸리티, 반도체, 기술하드웨어, 증권, 제약바이오, 정유, 해운, 조선. **하향 업종**은 항공, 화학, 게임, 은행, 건설, 통신, 기계, 화장품, 철강, 상사, 자동차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4Q25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KB금융, 셀트리온, HD한국조선해양 상향. 현대차, 기아, 한화오션,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하향

4Q25F OP 상향 주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씨어스테크놀로지, iM금융지주, 코리아써키트, 미래에셋증권, SK하이닉스, 쎄트렉아이, S-Oil, HD현대마린엔진,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셀트리온, LG이노텍, 삼성카드, GS, 금호타이어, 풍산, KB금융, 한국금융지주, NHN, 한전기술, ISC, 미스토홀딩스, 한온시스템, SK오션플랜트, NH투자증권, 롯데쇼핑, 대한전선, HD현대, 롯데관광개발, 팬오션, 신세계, 현대위아, 실리콘투, HD한국조선해양, 엘앤에프, 하이트진로, 삼성전기

외국인은 대형주 및 중형주 매수, 소형주와 코스닥 매도 그리고 성장주 매수 및 고배당 매도.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1.2조원, 코스닥 -4,5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방산, 건설, 조선, 유틸리티. **순매도 상위 업종**은 소프트웨어, 건강관리장비, 내구소비재, 비철금속

연기금은 중형주, 고배당, 가치주 매도, 성장주 소폭 매수.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5,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방산, 조선, 자동차, 건강관리장비. **순매도 상위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호텔레저, 해운, 항공, 상사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및 실적발표)

1.12일(월)

- / -

13일(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주택판매 / JP모건

14일(수)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소매판매, 기존 주택판매 /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15일(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 한미반도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16일(금)

- / PNC파이낸셜

Quant Comment

한국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전반적 실적모멘텀 추가 상향, 올해 코스피 OP 성장률 +56%(상향 중). 그 외 작년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은 유틸리티, 반도체, 기술하드웨어, 증권, 제약바이오, 정유, 해운, 조선 등

미국 IT 등 실적 모멘텀 여전히 견고한 상황, 금주 미국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높음. 금주 미국 물가지표 안정화 여부도 포인트(예상치는 전월과 동일)

미국 작년말 주가 눌림목 발생 종목 반등 가능 계절성 / 한국 실적모멘텀 및 저평가 핵심 팩터로 작용할 것